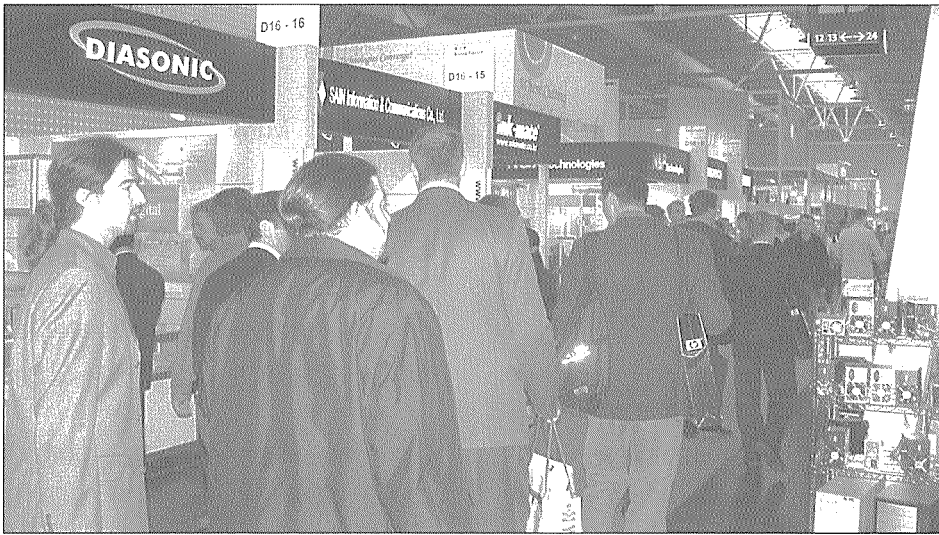


하노버 세빗(CeBIT) 참가 중소기업 목표초과 달성

상담액 5억불, 계약액 6,000만불 초과

LCD, PDP, 컴퓨터케이스, MP3플레이어 등 많은 실적

본회 정보통신산업팀
박노권 대리



올해 2회째로 참가하는 하노버세빗 한국공동관은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와 KOTRA 함부르크무역관(관장 나운수)이 공동주관한 프로그램으로 당초 한국관 참가업체들의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실적을 올렸다.

지난 3월 12일부터 8일간 개최된 박람회서 한국관 참가업체 50개사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상담액은 5억불로 목표대비 2배를, 실 계약금액만은 6,000만불을 넘어서 목표대비 3배이상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대비로는 상담액에서 2.5배, 계약액은 거의 9배에 달하는 성과이다.

참관객이 지난해에 비해 약 14%정도 감소(약 60만명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첫



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참가기업수가 50개사, 734㎡로 늘었고(2002년 44개사) 둘째, 참관객이 다소 감소한(약 60만명) 반면 바이어 수는 예년에 비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와 관련한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었고 셋째, 인터넷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컨버전스제품(MP3 플레이어복합기, VoIP, PDA 등)과 디스플레이 장치 등 경쟁력 있는 다양한 제품을 경쟁국에 비해 많이 출시하였고 넷째, 기업들의 사전 바이어 초청과 코트라외 무역관을 통한 한국관 알리기 등 전시회에 대비한 사전 마케팅 활동 등의 결과라 볼수 있다.

전시기간 동안 한국관을 찾은 내방객은 약 4만명에 상담을 벌인 바이어만 4,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상담 및 계약실적으로 보면 독일이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의 상담 및 계약이 전체의 70%로 주를 이루었으며 중동,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비해 많은 성과를 올렸으나 미국은 경기침체 지속과 對 이라크 전쟁 우려 등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았다.

품목별 운영성과에서는 LCD TV, LCD모니터 등 액정디스플레이장치와 대형벽걸이용 PDP



TV 및 위성방송수신(SVR)기능 내장TV 등 PDP기반 디스플레이장치가 가장 많은 계약실적을 올렸고, 다기능을 부여한 CPU Cooler와 컴퓨터케이스 등 컴퓨터주변기기, 저장장치, PDA 등도 현지바이어에 상당한 인기를 보이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

이밖에도 MP3플레이어와 보이스트레코더에 FM라디오 기능, 디지털카메라 등 3-4가지의 다기능을 가진 디지털복합기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며 많은 상담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안테나, 화상전화기 등 VoIP폰, 무전기, 중계기 등 통신기기 업체들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하노버세빗 전시규모는 8개 테마별로 총 27개의 대형홀로 구성되어 COMDEX Fall, COMPUTEX Taipei 등과 같이 참가업체, 바이어(참관객 포함), 참가규모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전시회로서 비즈니스 위주의 전문전시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기업들의 당해연도 실구매(통상 4월부터 회계연도 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마케팅 효과가 우수하여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IT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바이어방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기도 하다.